

경선 치열... 현 시장 무소속 출마설도

여수시장

여수시장 후보로는 자천타천 10명 가까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재선에 도전하는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해 강화수 민주당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김유화 전 여수시의원, 전창곤 전 여수시의회 의장, 정기명 변호사, 김현철 여수시민권익연구원장, 김점유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출마 뜻을 밝히고 있다. 무소속 후보로는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이 있다.

권오봉 현 시장은 민선7기 중심사업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2026여수섬박람회 개최 준비 등 지역 현안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민선 8기를 이끌 적임자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강화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은 2001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한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정책조정행정관, 국방부 정책보좌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거쳤다.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뜻을 만드는 소통,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내걸고 지방자치시대를 이끌 지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기명 변호사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경험을 토대로 선거 준비에 들



권오봉 강화수 김영규 김유화

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정 변호사는 여수시 고문변호사,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회의장,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유화 전 여수시의원도 출마 뜻을 밝혔다. 2014년 여수지역 최다 득표로 시의원에 재선되는 저력을 발휘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현철 여수시민권익연구원장도 출마표를 던졌다. 행정고시를 거쳐 행안부 중앙성과관리과장과 주민과장,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을 지냈다.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을 끝으로 지난 2019년 6월에 퇴임했다.

무소속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5선 의원으로 시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발로 뛰어 신도심과 구도심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용주 전 국



김현철 전창곤 정기명

회의원은 시장 출마를 사실상 접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장은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대리전의 양상을 띠기도 해 주철현(여수갑)·김희재(여수을) 국회의원이 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구를 밀어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주 의원과 김 의원이 각각 특성인물과 긴밀히 소통하며 확실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등 각종 설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두 국회의원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권오봉 여수시장의 무소속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강인규 시장 의혹 확산... 선거판 변수

나주시장

나주시장 선거전에는 강인규 현 시장의 3선 도전에 맞서 고위공직자, 언론인, 도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재선인 강인규 시장은 재임 기간 인구 10만명 회복을 통한 자족도시 완성,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착공, 에너지밸리 구축 등 빛가람혁신도시의 연착륙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나주교통 보조금 비리,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강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역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시장에 맞설 후보로는 박원우 전 전남매일 부사장, 송일준 전 광주 MBC 사장, 윤병태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 김병주 전 전남도 관광국장, 이용범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이재창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분부장 등이 있다.

박원우 전 전남매일 부사장은 지역현안·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호남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강의하는 등 현실 행정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지역이 잘살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전국시도 기자협회를 출범시키고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강한 추진력과 전화력으로 강점으로 꼽힌다.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은 MBC의



강인규 김병주 박원우 송일준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의 취재 PD와 앵커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페이스 북을 통해 '나주수첩'을 연재하면서 지역민들과 접촉을 넓혀가며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윤병태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기획재정부에서 25년간 근무해 축적된 행정 전문성을 갖췄으며, 중앙부처와의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김병주 전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나주 산포면장을 시작으로 해양수산국장, 순천부시장 등 요직을 두루 경험하며 쌓아 올린 행정 경험을 발판 삼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친화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용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전 국회 비서관과 대선 중앙선대위 공약 개발 등을 맡는 등 정책적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과거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활발히 했던



윤병태 이용범 이재창

이재창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분부장도 출마표를 던졌다.

나주시정 관계자는 "강인규 시장이 내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최근 각종 잡음이 새어나오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의 조직이 어느 후보를 선택하는지에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10여명이 넘는 후보군이 난립하면서 과열 조짐이 일자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지방선거 지원단을 구성했다.

/김용현·나주=이재순 기자

공천장 경쟁 속 무소속 거센 도전

순천시장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허석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가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공천을 놓고 다수의 입지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관규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도 확실시돼 치열한 본선이 예상된다.

행정고시 출신의 김동현 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이 강점이다. 최근 각 지역을 순회하며 '뚝배기 김동현의 순천이야기'를 SNS에 게재하고 '나도 그대의 희망이고 싶다'라는 책을 발간해 정책과 열골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손훈모 변호사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소송을 통해 민생을 챙기며, 이재명 전남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다양한 사회봉사로 공정하고 깨끗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탄탄한 중앙인맥이 강점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인 오하근 도의원은 일찍부터 출마를 결정하고 준비해왔다. 유능한 '경제시장'임을 강조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대동세상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역의원의 장점을 살려 표발을 다지고 있다.

제7대 후반기 순천시의회 의장을 역임



허석 김동현 노관규 오하근



임종기 손훈모 정만채 허유인

한 임종기 전남도의회원은 강직하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생태와 문화, 교육이 살아 숨 쉬는 순천을 제시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불출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정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은 전남도지사과 순천시장을 출마를 저울질하다 순천시장을 출마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대 교수와 총장을 지내 지역 실정에 밝은 데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특별단장을 맡아 당 기여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제8대 순천시의회 3선의원으로 후반기 의장을 지낸 허유인 의원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2회 연속 수상할 정

도로 일 잘하는 의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풍부한 정치 경험과 성실성, 소통을 잘하는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2012년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이후 총선에 계속 도전하고 있지만 낙선했다.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며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30%를 넘나드는 부동층이 든든한 후원군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에서 선두로 치고 나오는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허석 시장의 재판 결과와 무소속 출마 여부, 무소속으로 출마할 시 노관규 전 시장과의 연대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민주당 후보 vs 무소속 간 혈투 예상

광양시장

광양시장 선거는 3선 도전이 유력했던 정현복 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혈투가 예상된다. 본선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정인화 전 국회의원이 버티고 있어 최대의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는 김재무 전남체육회장과 김재휴 광양발전연구원장, 문양오 광양시의회 부의장, 박근표 전 YTN국장, 이용재 전남도의원, 정민기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으로는 서장원 광양보건대 총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은 두 차례의 실패를 딛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전남도의회 3선 의원으로 의장을 역임하며 쌓은 인지도와 넓은 인맥이 강점이다. 최근 북 콘서트를 개최하며 민심을 다지고 있다.

전남도 부이사관을 지낸 김재휴 광양발전연구원장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정령·투명·공정' 한 명품 광양시를 만들겠다"며 33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행정 실무 경험과 도덕성을 앞세워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다.

모범적인 의회 활동으로 주민들의 신뢰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문양오 광양시의회 부의장은 최근 정책 방향과 시민들의 지역 관심 사항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하



김재무 김재휴 문양오 박근표



서장원 이용재 정민기 정인화

는 등 현직 중심의 소통을 통해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다.

박근표 전 YTN 총무국장은 중앙의 폭넓은 인맥을 강조하며, SNS를 활용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과의 접촉을 넓히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광양'을 중심과제로 내걸고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3선 의원이자 전반기 의장을 지낸 이용재 전남도의회원은 풍부한 정치경력과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을 통한 폭넓은 인맥이 강점으로 꼽힌다. 상공인 단체 활성화 등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정민기 시의원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에서 이재명 캠프본부장을 맡았으며, 기성정치인과 다른 소신과 용기로 모든 세대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광양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서장원 총장은 3개의 박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학구적이며 국가기관에서 연구소장으로 31년 근무했다. 오랜 공직생활로 중앙정계에 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강한 추진력이 강점이다.

현재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 회장을 맡은 정인화 전 의원은 최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풍부한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양시를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김종식-박홍률 '리턴매치' 관심

목포시장

호남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목포시장 선거전에는 김종식 현 시장과 박홍률 전 시장의 리턴매치 여부가 관심 포인트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종식 시장은 5만 6,284표(47.75%), 박홍률 전 시장은 5만 5,992표(47.50%)를 얻어 득표 차이

는 292표에 불과했다. 당시 개표 90%대까지 박 전 시장이 줄곧 앞서가며 재선이 유력했으나 막판 관외 투표함 개봉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김 시장이 최종 당선됐다.

제24회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에 입문한 김종식 시장은 영암·신안·목포 부군수를 역임한 뒤 3선 완도군수를 지냈다.

민선 6기때는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맡기도 했다.

김 시장은 최근 국립한국심정진흥원 유치, 관광거점도시 선정, 신안군과의 통합 논의 등 지역발전 위한 현안 해결이 돋보인다.

김 시장의 유력한 대항마로는 박홍률 전 시장이 꼽힌다.

박 전 시장은 전남 서남권사회발전연구



김종식 박홍률

소 고문직을 맡으며 외연 확장과 목포 신도심의 젊은 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인사들의 일괄 복당을 허용하는 '대사면'을 결정하면서 목포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22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를 열고 탈당자들의 복당 허용안을 논의하고 오는 15일까지 복당 신청안을 받고 있다.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위원회는 최근 최고위에서 확정된 '7대 개혁과제'를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당 통합 논의에 착수했으며, 본격적인 합당 절차를 진행중이다.

재선 목포시의원(8-9대) 출신으로 인지도가 높은 전경선 전남도의원도 잠정 후

보군으로 꼽혔지만 최근 도의원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

역대 목포시장 선거는 지금까지 2명만 재선에 성공했고 민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이 당선되기도 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 추진 발표에 대해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중앙당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선택을 한 만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양강 구도로 팽팽한 선거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선 결과와 복당 등 변수가 많아 선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현·목포=박승경 기자